

대법원 1995.02.10. 선고 94다51895 판결[손해배상(자)]

**【판시사항】**

1차 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, 1차 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

**【판결요지】**

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, 그 두 사고사이에 1차 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차 사고의 가해자는 2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때까지의 손해만을 배상하면 된다.

**【참조조문】**

민법 제763조, 제393조

**【참조판례】**

대법원 1979.4.24. 선고 79다156 판결(공1979,11943)

**【전 문】**

【원고, 상고인】 전00

【피고, 피상고인】 심00

【원심판결】 창원지방법원 1994.9.9. 선고 94나1160 판결

**【주 문】**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

**【이 유】**

상고이유에 대하여

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, 위 두 사고 사이에 1차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차사고의 가해자는 2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때까지의 손해만을 배상하면 된다고 할 것인바(당원 1979.4.24. 선고 79다156 판결 참조), 원심이,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임00이 1992.12.26. 피고 소유의 자동차에 그 판시의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후 1993.8.25. 또다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, 이 사건 1차사고로 인한 위 임영식의 일일수익을 이 사건 2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때까지만 산정하였음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,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. 논지는 이유가 없다.

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